

이번에 가동된 공장은 전주 3공단에 위치해 있는 2만5천평 규모로 시험가동을 거쳐 지난달 10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미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화공사업 부문에서 영국 로이드선급협회와 한국선급협회로부터 공인을 획득하고 KS 표시허가를 취득, 그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미원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우수 품질의 공업용 질화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미원이 전주 제3공단내에 건설한 제2수지 공장은 수도권 공장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독일 뢰스트 그룹의 자회사인 비아노바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기계 성형용 수지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의 생산기술을 도입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2만5천평에 연 1만8천톤의 수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분산제어 시스템에 의한 자동설비 등 첨단 설비를 갖춘 수지공장을 완공하게 된 것이다.

(주)미원의 전주 제2수지공장 1,2차 증설이 완료되면 설비의 공용기능에 따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이외의 수지 생산이 가능해져 생산량 및 품질면에서 국내 수지업계 시장을 주도하게 되며 NC분야에서는 국내 NC시장 점유율이 90% 이상 가능해져 수입대체 효과 및 NC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국내 NC시장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C부문에서 연간 1천톤~1천5백톤 이상의 수출이 가능하며 현재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지의 시장확보와 함께 남미 및 미국시장 등지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 지난 1월 18일 지함조합 주최로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경제 환경 대응 세미나' 모습

카톤팩생산 '한국패키지' 설립
한국제지, 별도 법인으로 전문화

(주)한국패키지(대표 이경원)가 종이액체 용기인 카톤팩 생산 전문 중소기업체로 정식 출범했다.

이 회사관계자는 지난 12월 한국제지에서 분리, 계열별도 법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올부터 카톤팩의 생산, 판매를 전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독립하게 됐다고 말하고 한국제지는 인쇄용지 등 기존 종이류 생산에만 전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함업계 국제화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지함조합, 업계 경쟁력 강화 일환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대길)은 지난 1월 18일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지함업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함업계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대길 지함조합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중소기업

연합동조합중앙회 이병균 상근 부회장의 축사를 비롯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 이건우 국장의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발전방향과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가 정신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이대길 조합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함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조합원사가 서로 힘을 합칠 것을 다짐하고 어려운 지함업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카고 국제식품유통박람회

5월 개최, 최신 기술과 신상품 출품

미국식품유통협회(Food Marketing Institute)가 매년 주최하는 국제식품유통산업박람회가 오는 5월1일부터 4일간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mccormick place)에서 개최된다. 동 박람회는 약 1300개에 이르는 전시업체들이 세계의 슈퍼마켓 판매대에 오를 최신 기술과 신상품을 출품하여 경연을 벌이게 된다.

주요 전시 품목으로는 음료, 곡류(RICE/GRAIN/CEREAL), 제과-제빵류, 청과 및 야채, 유가공류, 수산물, 스

내류, 각종 양념 및 조미료, 잡화류, 낙농 제품, 유통관련장비 및 기기, 정보처리기기, 건강 및 화장품, 의약품 등이 있다.

전시기간중에는 FMI가 세심한 연구 끝에 마련한 교육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의 동향과 개발에 대한 상담 및 사업상의 도전 대응 전략에 관한 심층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수출식품전시회(U.S. Export Showcase)도 함께 열려 200여개 전시업체가 광범위한 종류의 식품들을 출품하여 국제 참관단과 상담을 벌인다.

자세한 문의는 미국대사관 상무과에 문의하면 된다(Tel:397-4186, Fax:739-1628).

합성수지 생산 의무감축 결정

10개 업체, PP 40일·PE 35일

대립산업, 유공, 대한유화, 호남석유화학 등 10개 합성수지 업체들은 올해 PP와 PE를 각각 40일과 35일 가동분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올부터 내년까지 2년동안 한해에 최소한 30일 이상, 2년동안에 80일 가동분만큼의 기초유분 생산을 줄이기로 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0개 합성수지 사장단은 국내 합성수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감산방안을 이 같이 결정하고 공급과잉이 가장 심한 PP의 경우 올해 국내 생산량이 1백43만 톤으로 당초 계획했던 1백58만톤보다 15만톤을 줄이게 되며, HDPE는 당초 계획분 1백29만톤보다 12만~13만톤 상당이, LDPE는 계획분 1백5만톤보다 10톤

포장협회 94년 정기총회 개최

회원자격 확대 등 정관 개정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회장 한용교)는 지난달 20일 서울 팔레스 호텔 로얄 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93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94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93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 9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정관개정에 대한 심의를 갖고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이사회의 결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개정된 정관의 내용을 보면 개정된 회원의 자격이 포장업체 및 포장산업에 관련된 업체를 영위하는 자에서 포장산업에 관련된 업체까지를 포함하여 회원 자격 범위를 확대했으며 가입시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을 이사회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의안심의를 마친후 94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창흥화성, 신규회원 등록

포장필름 생산업체

(주)창흥화성(대표 김성태)이 (사)한국포장협회의 신규 회원사로 가입했다.

창흥화성은 지난 72년에 설립되어 PE 방습포장지, 인쇄용 라벨 이형지, 각종 복합지, 종이킵지 등 LDPE와 비디오패스, 문구화일, 각종 칼라시트용 PP를 생산하고 있다.

설비현황을 보면 라미네이팅기, 슬리터기, 인쇄기, PP시트기, 실리콘 코팅 접착기가 있으며 부속설비로 소각로, 코로나방전기, 분쇄기, E.P.C, 양수기, 호이스트 크레인 등이 있다.

창흥화성의 김성태 대표는 포장업계 경력이 20년된 중견 기업가로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위치한 본사와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 공장설비를 갖추고 있다.

창흥의 자본금은 6억원이며 92년도 총매출액이 54억2천만원, 직원이 73명인 포장필름 생산업체이다.



▲ 한국포장협회는 지난 1월 20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94년도 정기총회 및 회원시간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상당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감산과 관련, 합성수지 업체들은 연간 2주일 정도 소요되는 PP, PE공장의 정기보수기간을 연장 각각 16일, 11일 연장해 감산에 나설 움직임이다.

업계는 이러한 방침으로 폴리에틸렌의 생산량이 10% 줄어 국내시장 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듀폰, 자이텔 나일론 수지공장 착공 싱가포르에 고품질제품 공급 기대

포장재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듀폰사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 자이텔 나일론 66수지공장 건설에 착공하기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초의 나일론 66수지 공장이 될 듀폰의 자이텔 나일론 종합시설은 1억6천만달러를 투자하여 싱가포르에 건설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미국에서 자이텔을 공급받던 한국듀폰(대표 김중세)에서는 싱가포르 공장이 완공되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이텔을 공급받음으로써 납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공법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제품을 국내 업체에 공급할 수 있고 더욱 강력한 기술지원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한편 이 자이텔 공장은 환경보호를 위한 시설에 4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공정개선, 폐기물의 감소 및 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클린테크놀로지를 실천하는 첨단 생산시설로 건설된다고 밝혔다.

신아, 군산 EPS공장 가동 연산 4만톤, 절반 수출

합성수지 전문업체인 (주)신아(대표 이은섭)가 1백70억원을 들여 군산에 연산 4백만톤규모의 발포스티렌(EPS, 스티로폴 원료)공장을 완공, 가동에 들어갔다.

신아는 지난달 9일 군산의 1만7천평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합성수지공장 건설사업 가운데 첫번째 프로젝트인 EPS공장을 완공,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아는 평촌 신도시 건설로 EPS, ABS등을 생산하는 기존 안양공장의 정상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군산에 대규모 대체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 회사는 EPS가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음을 감안, 군산공장 생산분의 절반인 연 2만톤 상당을 중국 등 동남아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EPS공장에 이어 2차로 3월말까지 연산 3만5천톤 규모의 PS공장을 완공, 공장이전과 관련한 1차사업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한편 신아는 ABS, PS공장 건설에 각각 80억원, 50억원 등 모두 1백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들 1차사업이 정상화되는대로 PVC 충격보강재 등 2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양나일론 등 투자예산 2배이상 늘려 내실경영 주력, 매출목표 소폭 높여

효성그룹의 주력 섬유회사인 동양나일론과 동양폴리에스터는 올 매출목표를 각각 7천5백억원과 3천1백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매출목표는 지난해 예상매출 7

천억원(동양나일론)과 3천63억원(동양폴리에스터)에 비해서는 각각 7.1%와 2.8% 늘린데 불과한 것으로, 올해에는 외형신장보다 내실경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들 양사는 올해도 투자예산을 올 실적보다 두 배 이상 늘려 동양나일론이 2천4백억원(93년 9백억원), 동양폴리에스터 8백40억원(93년 3백40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신호제지, 독일 제지사 공동인수 머서와 공동, 6백만마르크 투자

신호제지(대표 이순국)가 캐나다의 기업매수합병 전문업체인 머서인터내셔널사와 공동으로 프레스텐파피에르사를 최근 인수했다.

지난달 9일 신호제지 고위관계자는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 지역에 8개 제지공장으로 구성된 드레스텐파피에르사를 지난해 12월 독일의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기관인 트로이 한단스탈트와 2천만 마르크에 공동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지분은 신호제지가 6백만마르크를 출자해 30%를, 머서사가 1천4백만마르크를 출자해 70%를 각각 확보했다.

신호제지는 정식인수 계약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8개공장에서 크라프트원지 백상지 고지를 재생한 인쇄용지 벽지 원지 판지 내유지 등 여러 지종을 연간 24만톤 생산중이다.

현재 가동중인 드레스텐파피에르사는 공장 내에 열병합 발전설비가 갖춰져 있는 등 기본적인 동력시설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새 인수자들은 앞으로 이 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보완투자와 폐수, 대기오염 처리에 투자를 해나가기로 했다.

유화설비 다시 증설 움직임

업계, 올 1조3천여억원 투자 계획

지난해 공급과잉으로 주춤했던 석유화학에 대한 투자가 올해 다시 활기를 띠 전망이다.

상공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유공, 럭키, 한양화학 등 20개 주요 석유화학업체가 올해에는 지난해의 5천5백93억원보다 1백3.2% 늘어난 1조1천3백66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투자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삼성종합화학, 유공 등이 국내 공급이 달리는 TPA(고순도 테레프탈산) 등 합성원료와 TPA원료인 파라크실렌 등 중간원료의 생산설비 신증설을 본격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생산설비 신증설에 지난해 2천9백62억원보다 1백67% 늘어난 7천9백10억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 투자계획을 부분별로 보면 삼성종합화학 등 TPA 3개사가 지난해 5백14억원보다 4백26% 늘어난 2천7백4억원을 투자하는 등 합성연료쪽 투자가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제관업계, UN마크획득 준비

수출·납품에 차질 우려

금속캔을 만드는 제관업계가 유엔마크 획득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초 관련업계 발표에 의하면 유엔국제해상기구(IMO)가 제정한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의거, 지난해 12월1일부터 위험물질을 해상운송할 때 반드시 유엔마크를 인증받은 업체의 용기 및 포장물을 사용토록 함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이 마크를 획득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페인트 등을 담은 금속캔을 생산

하는 제관업체들의 경우 정보부족 및 기술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유엔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수출 및 납품판매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유엔마크를 인증해 주는 기관은 해운항만청의 검사대행 기관인 한국선급협회로 인증검사 기준에 합격하려면 기술개발 및 검사료가 소요돼 용기단가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제관업체는 모두 35개사로 7개사가 음식료품을 담은 식관을 생산하고 나머지 28개사는 페인트 윤활유 화학물질 등을 담은 잠관을 생산하고 있으나 유엔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아직까지 제관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5개 영세업체들은 분리식헤드, 비분리식헤드, 액체·고체등 만중 및 담은 물질에 따라 각각 다른 인장강도 등을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존 납품처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페인트링크 등에 캔을 납품하는 안양의 한진제관의 경우 전품목에 대해 UN마크를 획득하였으며 고려화학에 페인트용 캔을 납품하는 매일제관도 유엔마크를 획득했다.

올들어 선진국들이 유엔마크가 없는 인화물 및 위험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거절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영세제관업체들이 유엔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골판지 제조업체 기능상자 개발 주력

물량확보난 해소 겨냥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

판지업체들이 농산물 포장용상자 등 기능성상자의 생산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영포장, 태림포장, 한우포장 등 중견 골판지업계를 중심으로 농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주는 바이오세라믹 상자를 비롯 미장상자, 삼중골판지상자 등의 기능성 제품을 속속 개발해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골판지업계가 다양한 기능상자 개발로 신수요를 창출, 공급과잉에 따른 물량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전략으로 내년부터 이 부분 사업을 강화하는 업체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기능을 향상시킨 농수산물 포장상자 등은 20% 정도의 단가상승이 따르나 농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태림포장의 경우 국내 농수산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로 생산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배추, 무, 과일 등의 신선도를 보통 상자보다 훨씬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상자를 개발하고 내년초부터 농민단체 유통상 등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영포장은 신수요를 확대한다는 전략에서 첨단 상자기공설비를 들여와 부가가치가 높은 미장박스의 생산을 강화키로 했다.

회사측은 자회사인 칼라팩을 통해 상자의 외관을 고급화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내용물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개념박스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우포장 등은 골판지상자의 기능을 배가할 수 있는 삼중골판지 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관련기술 축적과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가 올 3월부터 공급할 3중골판지는 목재로 포장하던 중량물 등을 대체 포장할 수 있는 것으로 골판지 수요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비상가동 정지 ZERO화 발전대회

삼성, 공장운전 선진화·국제화 일환

삼성종합화학(대표 황선두)은 지난달 10일 충남 대산 유화단지에서 전 임직원 1,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공장의 연속-안전가동을 위한 '비상가동정지 ZERO화 발전대회'를 가졌다.

석유화학산업은 일관 장치산업의 특성상 NCC(나프타분해공장) 등 주요 공장의 가동정지는 곧 타계열공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제품판매 차질 등 직접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기회손실, 품질일관성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구미, 일본 등 선진국 유화업체는 오랜 경험과 운전노하우 축적으로 비상가동정지가 거의 없는데 비해 우리 유화업계는 전력공급차질, 장치트러블, 운전기술 미숙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 대회에서 삼성종합화학 대산 유화단지 전 임직원은 금년 한해 공장운영의 최대 목표를 비상가동정지 ZERO화로 정하고 이미 생산·공무·지원 등 각 부분별로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된 T/F팀 구성 등 각종 계획을 실천에 옮겨 공장가동의 선진화, 국제화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폐지재활용 포장재생산 늘 전망

한일이어 태영 등 일부업체 참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지

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려는 업체가 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폐지를 회수, 재활용한 무공해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에 신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사업에는 주식회사 한일(대표 이광문)이 지난해 9월부터 펄프몰드제품의 생산을 시작하고 있고 골판지업체인 대영판지(대표 강빈구)가 미국의 암코 화이버셀사로부터 기술을 도입, 오는 5월부터 폐지를 이용한 충격흡수 내포장재를 생산기로 했다.

태영은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건평 1천6백평 규모의 공장건설에 착수했다.

오는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평택공장은 암코사에서 2개의 생산라인을 비롯해 몰드 제작설비 등 연간 7천톤 규모의 폐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암코 화이버셀사와의 기술도입조건은 우선 기술료로 29만달러를 지불하고 매년 순이익의 3%를 주기로 했다.

태영은 무공해포장재 제조와 폐자원 사용으로 연간 80억원의 매출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에 진출한 한일이 전북 김제공장에서 하루 20톤의 폐지를 포장재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제품생산을 하고 있다.

또한 중견 골판지업체와 가전사를 중심으로 이 사업에의 참여 움직임이 일고 있어 앞으로 폐지를 이용한 포장재 생산 설비의 증설이 잇따를 전망이다.

펄프몰드성형품은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보편화됐으며 국내에서도 비닐 등 플라스틱포장재의 사용이 법적으로 규제되면서 이의 사용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중국시장 영업활동 강화

대성, 시장조사와 신수요처 확보노력

대성정밀(대표 양중환)의 사시키 상무와 김삼호 과장이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중국 방문은 대성의 출고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지역에 대한 수출강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은 이번 기계출고 목적 외에도 시장조사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사 제품의 신수요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건의

인쇄연, 인력난 해소 등 경영회복 위해

인쇄연합회(회장 박충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대상 업종에 인쇄업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상공자원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인쇄업은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인력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하는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대상 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인쇄업이 외국인 고용대상 업종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로 ▲3D업종으로 생산공정이 복잡하고 조판, 제판 및 제본공정이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노동집약 산업이며 ▲평균 상시 종업원이 17명이고 ▲경기에 민감하고 계획 생산이 불가능한 수주산업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을 들었다.

또한 인쇄업계는 기능공이 연간 1천3백명이 필요한데 공업고등학교 및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연간 배출인원이 6백명 정도에 불과해 수요에 크게 미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 인력 유출이 심하고 모집하려 해도 응모자가 없으며 신문사 창·복간과 지방 분공장 설치, 비영리기관의 인채기능공 스카우트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기능공 부족현황은 서울지역이 약 2천5백명, 지방이 1천5백명 등 4천여명이 부족해 인채업계의 인건비 상승 및 경영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냉장 물류센터 완공
풀무원, 대진 등 3곳

풀무원식품(대표 남승우)이 지난해 12월 27일과 올 1월 11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냉장 물류센터를 잇달아 설치, 서울 문정동 흥은동 등 기존시설과 함께 전국에 5군데의 냉장 물류시설을 갖게 됐다.

풀무원은 이번 3개 도시 물류센터 설치로 충북 괴산, 경기도 양주, 강원도 춘천 등 3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냉

장상태로 보관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외화표시 원화대출 연장 요구
기계업계, 국산기계 구입 확대 위해

기계업계는 국산 기계구입에 대한 지원책으로 92년 1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외화표시 원화대출자금 대출을 추가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기계공업진흥회(회장 김선홍)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조원 규모로 조성된 국산 기계에 대한 외화표시 원화대출자금은 지난해말 현재 4천5백억원이 대출 완료됐고 나머지 자금도 대출승인이 완료돼 소진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 자금을 사용해 국산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더 이상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계업계는 외화표시 원화대출자금의 이율이 리보금리에 2%를 더한 5.5%로 국내 은행자금보다 훨씬 싼 이자로 국산 기계 수요촉진에 기여한 만큼 이를 연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처럼 국산 기계 구입시 국내 은행 자금만을 사용할 경우 싼 이자의 외화대

출을 사용할 수 있는 외산 기계 구입만 촉진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계공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원화표시 외화대출자금이 초기 단계에서는 인식부족으로 사용이 부진했으나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신청업체가 급증해 국산기계 구입을 크게 촉진했다"며 "적어도 UR의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는 최대한 이 자금을 활용, 국내 기계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류인 신년 교례회 가져
물류자료정보센터 주최로

물류자료정보센터(대표 한상원)가 주최한 물류인 신년 교례회가 지난달 20, 21일 양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제 1회의실에서 있었다.

UR과 국제화에 따른 94년도 물류정책 특강이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교례회에는 UR과 국제화에 맞추어 정부가 추진하게 될 물류정책 계획을 집행부처와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기업마다 관심이 높은 물류단지 선정에 관한 개정 법률의 해설을 청취했다.

한국프리카, 조직정비
이영호 대표이사 선임

한국프리카공업주식회사가 새로운 대표이사에 이영호 씨를 선임했다.

한국프리카공업은 지난해말 이사회를 열고 전 이석은 대표이사의 후임에 이영호 씨를 선임하고 새롭게 조직을 정비했다.



▲ 풀무원식품의 냉동 물류센터